

The·K

Interview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선생님의 선생님'
정유진 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

아름다운 동행

30년 지기 세 친구, 초록빛 담양으로 떠난 여름 여행
정순영 화성 서연초 · 이정은 화성 반석초
이진섭 화성 발안중 행정실무사

The-K Issue

은퇴 앞둔 교직원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Monthly Magazine

August 2019

Vol. 24

CONTENTS

2019 AUGUST VOL.24



The-K

VOL.24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 | |
|----|------------------------|
| 4 | 여는 글 |
| | 바람을 향한 여행 |
| 6 | Essay |
| | 선생님은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할까? |
| | 조미성 인천선학초 교사 |
| 8 | Interview |
| | 교실 안에 사람이 있다 |
| | 정유진 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 |
| 14 | Interview |
| | 광야를 달리던 뜨거운 의지여, |
| | 돌아와 우리의 가슴에 안기라 |
| | 김태빈 서울 한성여고 교사 |
| 20 | 아름다운 동행 |
| | 바람이 부는 숲, 동화처럼 함께 푸는 숲 |
| | 정순영 화성 서연초 행정실무사 |
| | 이정은 화성 반석초 행정실무사 |
| | 이진섭 화성 발안중 행정실무사 |

| | |
|----|-----------------------------|
| 26 | 먼 나라 교육 편지 |
| |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핀란드의 학교 이야기 |
| | 핀란드 탐페레 |
| | 이윤아 제주 삼양초 교사 |
| 30 | 트렌드 GO GO |
| | 100세 시대가 믿고 말기는 신탁의 금고 |
| 32 | 네오필리아 |
| | 나의 인생 친구, 막걸리 |
| 34 | 브랜뉴 여행 |
| | 도시 문화 산책 ⑫ |
| | 이비사, 한 번쯤 일탈의 섬으로 |
| 40 | 문화 산책 |
| | 영원한 신들의 땅, 그리스에서 온 보물 |
| | 그리스 보물전: 아가멤논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
| 42 | 꿈꿀 공간 |
| | 사람과 책, 책과 사람을 잇는 사랑의 이음 물결 |
| | 책마을해리 |

| | |
|----|---------------------------------|
| 46 | The-K Issue ① |
| | 2019년 9월 1일, 장기저축급여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
| 48 | The-K Issue ② |
|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
| 50 | The-K Focus |
| | 아이들을 닮은 싱그러운 숲속 음악회 |
| | The-K행복서비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
| 54 | The-K Family ① |
| | The-K호텔서울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
| 58 | The-K Family ② |
| | The-K지리산가족호텔 휴스테이 |
| 61 | 독자 이벤트 |
| | 8월 즉석당첨 이벤트 |
| 62 | The-K News |
| |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

| | |
|-----------|---|
| 발행인 | 차성수 |
| 발행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
| 발행일 | 2019년 8월 1일 |
| 편집 | |
| 기자 | 정수희 jsh@swadcom.co.kr |
| 객원 기자 | 이성미 강나은 진미현 |
| 교열 | 박혜경 |
| 디자인 | |
| 아트 디렉터 |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
| 디자이너 | 국순호 ksh@swadcom.co.kr |
| 사진 | |
| 포토그래퍼 | 한상무 이성원 장병국 |
| 사진 자문 |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
| 법률 자문 |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
| 애플리케이션 제작 | (주)아이원기술 |
| 제작 인쇄 | (주)성우애드컴 02-890-0900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한국교직원공제회 | |
| 회원콜센터 | 1577-3400 |
| 보험콜센터 | 1577-3993 |

어느 글

바람을 향한

여행

느리게 걷는 품이 좋았습니다.
알싸한 내음을 풍기며
오고 가던 계절을 주운 것처럼
보폭을 맞추며 다정히 걷던 길

당신을 만난 길이 좋았습니다.
사소하게 반짝이는 시간들
해사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들
그 속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우리만의 여정
우리의 바람은 그저 당신의 안녕이자
당신의 여행에 공히 동참하는 것

그 세계에 당신과 서 있습니다.
여름 바람을 타고 날아온 당신과 함께
이제는 서로의 여름을 주우며
그저 가만히 앉아 마주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여행은 충분히 또렷합니다.

바람(風)을 향한 여행은
당신을 향한 바람(望)이므로
돌아갈 그곳에서 웃을 수 있도록
다시 격렬히 끌어안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당신의 여행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할까?

글 조미성(인천선학초 교사)

나는 학교가 좋다.

아침에 출근해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의 기분을 짐작하는 것이 좋다. 활발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린이들이 우렁차게 인사하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함박웃음이 지어진다. 수줍고 조심성 많은 아이가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조잘거리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보면 혼자 감동을 받는다. 솔직히 조금 멋없지만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다 괜히 혼자 울컥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점심시간에 화창한 햇살 아래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찬란해 마음이 저리다.

나는 학교가 좋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좋다.

정규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가끔 주체 못할 공허함에 휩싸인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크고 애뜻해 아이들의 생각이 속속들이 궁금하다. 아이들의 시선이 궁금하다.

선생님은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할까?

선불리 '아이들도 분명 행복할 거야' 지레짐작할 수 없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곤 한다. 희미하던 회색빛 기억에 한 방울 한 방울 색이 스며든다. 바깥 대로 바깥, 각색될 대로 각색된 어린 날의 기억. 자라느라 바빴던 시간들 속에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아픔으로 각자의 고난으로 자라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겠지. 아이들이라고 삶의 무게가 깃털 같아 마냥 행복할 수는 없겠지. **아이들이 마냥 행복하기를 바라고 마냥 밝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강요이고 폭력일지도 모른다.**

간혹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까지 아파야 할까' 싶을 만큼 힘든 환경을 견뎌내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아픔에서 모두 구원해주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가 겪는 슬한 문제 속에 나는 무력하다. 아이들의 문드러진 마음이 보일 때면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그 아이 몫의 고통이구나. 나는 무엇도 해 줄 수 없구나"** 하는 무

력감에 마음이 아파온다. 나 하나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나는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욕심임을 절감한다. 다만 아이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기를 소망한다. 가끔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 이 있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 기관지염이 쉬이 낫지 않고 비염으로 중이염으로 번진 적이 있다. 한 달이 넘도록 골골거리며 강한 약 기운에 수업 시간에도 졸음을 떨치느라 고생했다. 영어 수업을 들으러 전담 교실로 향하던 아이들, 그중 한 아이가 돌아와 다정한 말을 건넨다.

"선생님, 안 바쁘시면 저희 가고 나서 조금 주무세요." 아이들을 보살피는 내가 아이에게 보살핌을 받는 경험, 마음이 간질거린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온 지 몇 년이나 되었냐고 묻는다. 올해가 2년째라고 이야기해주니 아이들끼리 손뼉 치며 "그럼 내년에도 계시는 거죠?"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2년 연속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이 누구누구인지 나열하며 "선생님이 내년에 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세요"라고 한다. 사실 나는 아이들을 만난 첫날, 2019년 3월 2일에 곧장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한 지 한 달 만에 끝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보니 '외롭지 않은 짝사랑이 다 있구나' 한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들의 과거에 나를 나에 대해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있을 나에 대해 생각한다. 나와 아이들은 어른과 어린이로 만났지만 이 아이들은 금방 나를 스쳐가 학교를 떠나 어느새 건장한 청년이 될 거다. 아이들이 겪어나갈 세상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 걱정으로 다가온다. 각자의 삶을 견뎌낼 우리 아이들을 나는 그저 잘해낼 것이라고 믿고 마음 깊이 응원할 수밖에.

작년 우리 반 아이들이 찾아오면 반갑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 현재 우리 반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선생님 자식이냐고 자신들도 선생님 자식 해달라고 농담을 한다. 고작 1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지만 너희는 영원히 선생님의 아이들일 거라는 간지러운 말은 마음으로 삼킨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애뜻할 우리 아이들. 너희가 바라보는 세상을, 학교를 선생님은 알 수 없지만 그저 사계절을 우리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이들 인생의 한 조각을 함께 겪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쏠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으며 오늘의 우리에게 충실한다. 더 큰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생각을 나누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이 겪어나갈 세상 속에 언제나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고 싶다.

조미성 인천선학초 교사

아이들 인생 한편에 따스하게 자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든든한 나무가 될 수 없다면 작은 그늘이라도 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편이 되어 편견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매번 고민해도 학교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교실 안에 사람이 있다

정유진 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

교실 안을 들여다보라. 칠판과 책상, 의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실 안은 행복이 가득해야 한다. 정유진 소장은 교실 안에서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그러기 위해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한 선생님의 교육학은 세상 그 어떤 교육학보다 힘이 세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삶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는 곳, ‘사람과교육연구소’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

연구소 문을 열자 기차 지나는 소리가 들린다. 기차는 오송역에서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사람들을 역 밖으로 향하게 한다. 그리고 내린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금 더 걸어와 ‘사람과교육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고, 정유진 소장을 만난다. 더 좋은 교사이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를 만나러 온다.

“사람과교육연구소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모여 좋은 교육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안으로는 성찰하고 위로받고 치유하고, 또 밖으로는 훈련하고 연대함으로써



성장하는 공간이고요. 더 많은 사람이 연대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오송역 인근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정유진 소장은 지난 20년간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인디스쿨 3기 대표 운영자이자 EBS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전문위원, 그리고 교육학자로서 교사 상담과 교육 연수를 계속해왔다. <지니샘의 행복교실 만들기> <행복하고 탁월하며 민주적인 학급을 위한 학급운영시스템> <SAVE THE SCHOOL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공저) 등을 펴낸 작가로서도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만난다. 누구도 그의 시작이 미약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가 되기 전부터 수많은 외국 교육학자의 이론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초임 교사 시절, 미숙함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계속 마주하면서도 기존 교육학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웠죠.”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은 세 가지 수준과 여섯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처벌이 두려워 복종하는 단계, 2단계는 욕구 충족을 위해 규칙에 따르는 단계이고, 점점 나아가 5단계는 사회적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단계, 6단계는 보편적·윤리적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로 정의한다.

교사는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행동에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유진 소장은 초임 교사 시절 학생들을 힘으로 복종시키려 했다고. 그리고 미숙함에서 오는 부끄러움은 그를 더 나은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나아가게 했다.

“어깨동무’라는 모임을 만들어 교육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실천했어요. 그리고 기존 교육 이론의 구조에 현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살을 붙여 저만의 교육학인 ‘행복교육학’을 만들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학이요. 그리고 이것을 ‘인디스쿨’이라는 교육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사들에게 행복교육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행복교육학을 탄생시켰지만, 정유진 한 사람의 철학과 경험에 맞춘 교육학이 모든 교사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 사이에서 실패담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마다 철학과 교육 환경이 다른 탓도 있었지만, 교육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을 전달한 탓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벗어나 교사 각자가 자신만의 교육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과정을 가르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쏟아졌다. 많은 교사가 그의 제자가 되길 자처했다. 일회성 강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교육자로서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오송역 인근에 사람과교육연구소를 만들고, 학교를 나와 이곳 소장이 되었다.

현재 연구소는 행복교육연구소, 마음연구소, 수업연구소, 부모연구소로 분야를 나눠 교육학 연구 및 교육 연수,





“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나아갈 용기와 기술을 얻게 합니다.
교사의 행복은 행복교육학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연구소의 지향점이에요.

”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을 진행한다. 기존의 학급 운영 시스템 교육은 대부분 교내 활동을 설명하는 데 그쳤지만,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교육학은 교사의 자아 성찰, 학생 심리, 학생 공동체 기초 세우기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접근하고 있다. 덕분에 교사들은 배운 것을 토대로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유진 소장이 가르친 학생(교사)들은 다시 강사가 되어 더 많은 이에게 행복교육학을 전파하고 있다. 그동안 1년의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총 800여 명, 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은 80명에 이른다. 2020년이면 연수를 마친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멀리서 찾아와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고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삶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는 곳, ‘사람과교육연구소’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선생님의 선생님’

정유진 소장의 교육학이 계속 지지를 받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앨더퍼(Clayton P. Alderfer)의 ERG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관계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 욕구(Growth Needs)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존재 욕구가 충족되면 관계 욕구가 증대되고, 관계 욕구가 충족되면 성장 욕구가 증대된다. 사람은 어릴 때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유진 소장의 주장이다.

물론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이란 아이가 자라는 가정, 교실, 사회 모두를 포괄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함께 머무는 우리의 몫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듯, 교실에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그들은 시스템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교실 안



에서 존재하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픈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실은 여전히 전쟁터이고 교사는 언제나 상처 입을 수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나아갈 용기와 기술을 얻게 합니다. 교사의 행복은 행복교육학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연구소의 지향점이에요.”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유진 소장은 차츰 연구소의 울타리를 넓히고 있다. 그의 시야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외국 교육학자가 만든 교육학을 수입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잘 만들어진 교육학을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동남아시아처럼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더욱 좋고요. 나아가 북으로까지 우리의 교육학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실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는 꿈이 있다. 행복하고 싶다. 너와 함께 행복하고 싶다. 내일 더 행복하고 싶다. 800여 명의 교사가 정유진 소장님과 함께 꿈꾸고, 꿈을 현실화할 기술을 배워 나갔다. 그러니 머지않아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칠판과 책상보다 먼저 웃는 아이와 교사의 얼굴이 눈에 띄는 것이다.



광야를 달리던
뜨거운 의지여,
돌아와 우리의
가슴에 안기라

김태빈 서울한성여고 교사

누군가는 펜을 들고, 누군가는 총을 들어 어둠에 맞서던 시절이 있었다. 치마
폭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어 해방을 울부짖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의 자랑스러운 역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다. 서울 한
성여자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김태빈 교사가 역사서를 손에 든 모습
도 전혀 낯설 것이 없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즉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요. 국어 교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걸음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항일 답사는 물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과 관련한 책을 펴내고, 항일 답사 프로젝트를 기획해 인솔하고 있는 것.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미래다.
 “대학에서 오래 공부하느라 뒤늦게 교사가 되었어요. 그때는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빨리 좋은 교사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우선 실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국어 교사다 보니 자연스레 논술과 관련해 글을 쓰게 되었고요.”
 논술 전문 잡지에 연재하던 글을 모아 첫 번째 책 <김태빈의 서양고전 껍질 깨기>를 발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행본에서는 평소 문학을 공부하며 관심이 있었던 박지원, 정약용, 김정희를 소재로 삼고자 마음먹었다.



역사 찾아 길을 나서는 국어 교사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 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폭력에 우리는 평화로 맞섰고, 독립 의지는 무형에서 유형으로 바뀌어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 의지를 관철했다. 이것은 유구한 한반도 역사 중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운동사다.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태빈 교사는 이토록 빛나는 독립운동을 알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선 사람 중 하나다. 간혹 누군가 “국어 교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라고 물으면, 그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답한다.
 “문학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레 작품과 관련한 인물을 함께 공부하게 돼요. 그들의 삶을 알아야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절로 인물이 살았던 배경,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사명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제대로 배우는 일을 계속한다.



운명처럼 2013년부터 3년 동안 베이징 한국국제학교에 파견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며 공간과 시간, 사람을 잇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베이징(北京)은 세 인물을 연구하기에도 좋은 장소였던 것. 그렇게 국어 교사의 역사 공부 본격 시작됐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운동을 알리다

베이징과 상하이, 뤼순(旅順) 등 중국 전역을 두루 돌아보며 그는 윤봉길, 신채호, 이회영,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함께 쫓았다. 특히 베이징은 이육사가 순국한 곳이기도 했다. 이육사, 윤동주 등의 작품을 가르치는 국어 교사의 눈에 독립운동사가 들어오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던 그가 점점 다른 시선으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공존하게 된 것.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항쟁은 그의 가슴을 세계 두드렸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이야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련.

이육사의 '청포도(靑葡萄) 中'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나라를 빼앗겼다는 부끄러움이었다면, 항일 역사를 알면 알수록 ‘역사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부끄러움이 생겼죠. 자랑스러운 항일 역사의 흔적이 잘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그는 수시로 중국 내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고 열 번 이상 해외 답사를 인솔했다. 2016년에는 먼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청소년을 위한 연암 답사 프로젝트>를, 2017년에는 항일 답사 안내서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를 펴냈다. 책 제목은 일제강점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변호를 맡은 관선 변호인 미즈노 기치타로(水野吉太郎)가 생전에 “나는 안중근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난다”라고 말한 것에서 따왔다. 또 2018년에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흔적을 좇아 <우당 이회영 한 번의 죽음으로 천년을 살다>(공저)를 펴냈다.

역사야, 살아 소리쳐라

김태빈 교사가 역사를 알리는 방식은 지시도 설득도 아니다. 더하고 빼는 것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우리 독립운동사가 살아 있는 장소로 사람들을 이끌어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느끼고 깨닫고 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문학가가 항일 활동을 했지만, 친일을 한 문학가도 많아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 사실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친일도 항일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교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는 역사 자체로 만났을 때 가장 감동적이라고 믿습니다. 순수하게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사명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제대로 배우는 일을 계속한다. 김태빈 교사가 조금 더 거드는 일이 있다면, 역사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육사의 딸 이육비 여사를 학교에 초청해 아이들과 만나게 하거나 ‘청포도 프로젝트’ 등 새로운 항일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그가 몸담고 있는 한성여고가 자리한 성북구는 이육사가 ‘청포도’ ‘절정’을 쓴 곳이기도 해 지역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도 좋았다.

“제가 역사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순 없어요. 대신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장점을 살려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 스토리텔링하고, 새롭게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쉽게 역사를 알릴 수 있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그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더욱 대중화되는 한편, 특정 인물에 집중되어 있는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 더 많은 독립운동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또 우리 문학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인 이육사와 윤동주를 알리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가 일본 도쿄(東京)와 교토(京都)일 거예요. 두 지역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의미가 매우 큼니다. 특히 교토에는 현재 운동주의 시비가 3개나 세워져 있어요. 일본을 여행한다면 잠시나마 우리 역사를 떠올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국내외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제 목표고요.”

역사는 언제 어디서든 빛나고 또 소리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보고 듣는 것이다. 그럼 역사는 저절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 것이다.



“

우리 역사는 역사 자체로 만났을 때 가장 감동적이라고 믿습니다. 순수하게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바람이 부는 숲 동화처럼 함께 푸는 숨

나무가 노래하자 산들바람이 다가온다. 무더운 여름, 전남 담양의 나무 곁에는 세 친구가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 선선히 불어오는 여름의 바람, 함께 걷는 작은 돌담길, 소곤소곤 들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여름은 소박하지만 해사했고, 그래서 청량했다.
글 강나은 정수희 사진 한상무

정순영

화성 서연초 행정실무사

이정은

화성 만석초 행정실무사

이진섭

화성 발안중 행정실무사





휴식이 간절히 필요할 때였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친 일상을 달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한 특별한 여행이 필요한 터였다.

나이테보다 더 진한 인연의 끈

인생의 마디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 굵직굵직한 대소사를 함께 겪은 30년 지기 세 친구. 그 기억은 나이테보다 진해져 우정이 되었다. 세 친구의 인연은 중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중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 세 친구는 단짝은 아니었지만 반가운 동네 친구 사이였다.

얼굴이 하얗고 예뻐 새침해 보였다는 이정은 반석초 행정실무사, 당시 인기 가수 변진섭과 이룸이 같아 유명했던 이진섭 발안중 행정실무사, 그리고 <The-K 매거진>의 ‘아름다운 동행’을 즐겨 볼 때마다 이들을 떠올린 수다쟁이 정순영 서연초 행정실무사. 운명처럼 만난 인연은 아니지만 서서히 스며들며 서로에게 물들어 지금은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세 친구가 30년 지기를 기념해 동행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학창 시절보다 결혼한 뒤에 더 친해졌어요. 길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꽃피었던 여고생을 지나 어느덧 결혼해 아이를 낳기까지 세 사람의 시간은 같은 나이테를 그려왔다. 모두 결혼한 뒤에도 고향인 경기 오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서로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터놓기 부끄러워 말 못한 이야기도 이들 사이에는 거침없었다. 결혼 뒤 겪은 생활이나 고부 갈등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털어놓게 되었다. 결혼한 시기와 자녀들 나이가 비슷해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는지 모른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쌓일수록 이들은 가족보다 서로를 더 알아주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순영이가 행정실무사를 추천하더라고요. 덕분에 진섭이와 저는 행정실무사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순영이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동안 쌓은 커리어는 모두 사라졌다. 자신감마저 무너졌을 때, 새로운 희망을 건넨 건 정순영 행정실무사.

그렇게 이정은·이진섭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같은 직업의 끈을 맺으며 우연에서 인연으로, 인연에서 필연이 된 세 사람. 누구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인연의 끈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친 눈과 마음을 달래줄 초록빛 담양

휴식이 간절히 필요할 때였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친 일상을 달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한 특별한 여행이 필요한 터였다.

“친구들에게 짜증을 많이 부렸어요. ‘재, 왜 저래?’ 하며 피할 수도 있을 텐데 두 사람은 오히려 저를 받아주고, 배려해줬죠. 너무 고마워요.”

이진섭 행정실무사의 말에 이정은 행정실무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안 그러던 친구인데 감정 기복이 부쩍 심해졌어요. 근데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도 곧 오겠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재미있는 건 같이 하려고 해요.”

여름이면 더욱 울창해지는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재충전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세 친구의 전남 담양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발걸음은 소쇄원이었다. 푸름과 고즈넉함이 어우러진 곳을 걸자 왜 이곳이 옛 문인들의 교류처였는지 알 수 있었다. 곳곳의 나리꽃과 다람쥐가 새 친구를 환하게 반겼다. 땀이 사이로 불러오는 바람은 소리마저 시원했다.

행정실무사로서 민원 증명, 기록물 관리, 세입 정리 등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 초록빛으로 물든 자연이 어찌나 싱그러운지. 일상의 힘들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 그만큼 다양한 일이 일어나지만 이들의 직업적 만족도는 높다.

“학교 행정실무사로서 뿌듯한 일이 많아요. 학부모로 있을 때보다 이 일을 하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죠.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시는 선생님이 많거든요. 선생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정은 행정실무사의 말에 정순영·이진섭 행정실무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게다가 세 사람은 서로 추천해 2010년부터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뒤 복지 혜택으로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저축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 역시 같은 교직원이어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이다.

천천히 느리게 걸어야
참 매력을 알 수 있는
담양처럼 세 친구는
지난 30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같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wcy2000@naver.com

청량한 여름빛보다 더 단단해질 우리

다음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향했다. 새파란 하늘, 양옆으로 하늘을 향해 늘어선 나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은 무더운 여름날임을 잊게 만들 정도의 청량함을 선물했다. 세 친구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처럼 손을 뻗어 바람을 느꼈다.

“메타세쿼이아 길이 트여 있어 정말 상쾌하다. 여름인지 모르겠어.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

“매일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너희와 함께하니까 나도 모르게 더 웃게 되네.”

세 친구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그때, 옆 호수에서 헤엄치던 거위 한 쌍이 찾아왔다. 동화같은 풍경에 모두 놀라며 즐거움을 나누던 순간, 이 정은 행정실무사가 말을 이었다.

“신기하게도 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 늘 행운이 따라요. 오늘도 장마철인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여행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네요.”

모두가 청량한 행복을 안고 마지막 장소인 창평 슬로시티로 향했다. 시간이 유독 느리게 흐를 것

같은 이곳에 도착하자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슬로시티를 상징하는 큰 달팽이가 유독 눈에 띄며 세 친구를 반겼다. 야트막한 옛 돌담이 구불구불 이어 있는 길을 걸었다. 낮은 돌담 사이사이 꽃이 피어 있고, 돌담 아래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빠르고, 요란한 세상은 이미 저 멀리에 있었다. 오늘 자리를 비운 한 친구를 떠올리며, 다음에는 함께 와서 민박도 하고, 더 천천히 동네를 둘러보자고 말한다.

천천히 느리게 걸어야 참 매력을 알 수 있는 담양처럼 세 친구는 지난 30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깊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더웠던 지난날은 서로에게 기대며 잠시 쉬어 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여전히 다른 계절이 남아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다. 앞으로도 사계절을 함께할 친구들이 있으니까. 올 가을도, 겨울도 내년 봄도, 더 훗날에도 오늘처럼 웃으며 말이다.

세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소쇄원

민간 정원이자 전통 원림. 조선시대(1500년대) 양산보가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호남 사림을 이끈 인물들의 교류처가 되었다. 송순, 임억령, 정철 등이 시를 지으며 정치와 학문을 논했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시냇물이 소쇄원을 가로지른다. 고즈넉한 풍경에 옛 선비들의 풍류를 즐길 수 있다.

📍 기사문학면 소쇄원길 17
☎ 061-381-0115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걷기만 해도 좋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길로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오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선물한다. 겨울엔 하얗게, 가을엔 노랗고 붉은 길을 만들어 계절마다 특색 있는 풍경을 자랑한다. 그중 백미는 녹음이 짙어지는 한여름의 푸름. 나무 사이로 내리는 햇살마저 그림이 된다.

📍 담양읍 학동리 578-4
☎ 061-380-3149

창평 슬로시티 삼지내마을

시간마저 쉬어가게.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에 지정된 삼지내마을은 온 동네 골목이 3600m의 낮은 돌담이 이어진다. 등록문화재 제365호로 지정된 낮은 돌담길은 사이로 작은 개울물이 흐르며 100년 넘은 고택과 옛집들이 자리한다. 마을을 걷다 보면 포근한 풍경이 시간은 물론 마음마저 쉬이 될 것이다.

📍 창평면 돌담길 56-24
☎ 061-383-3807

신식당

담양의 무수히 많은 떡갈빚집 중 1932년부터 시작해 4대째로 이어진 명가. 오직 한우 갈빗살만 사용하며 기름을 떼어내고 살을 발라 다져 만든다. 다진 고기를 다시 빼에 붙여 참숯에 구워내 육즙이 가득하다. 대나무향이 밴 대통밥과 담백한 밀반찬을 함께 즐기면 맛의 조화는 배가 된다.

📍 담양읍 중앙로 95
☎ 061-382-9901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정순영 화성 서연초 행정실무사

우리가 만난 지 30주년을 기념해 '아름다운 동행'을 신청했는데, 숙려움이 많은 친구들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다니 제가 더 기뻐요.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가족이 우선이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The-K 매거진>을 통해 잠시나마 주인공이 된 것 같아 행복했어요.

이진섭 화성 발안중 행정실무사

요즘 가정과 학교에서 근심이 많았는데 순영이와 정은이 그리고 <The-K 매거진> 덕분에 힐링하고 가요.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고마웠어요. 확실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으니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시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양의 대나무처럼 우리 우정도 변하지 않고 더욱더 굳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정은 화성 반석초 행정실무사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추억 한 것, 인생 한 컷을 얻게 돼 기분이 정말 좋아요. 20~30대에는 사진을 많이 못 찍어 이런 사진이 더 소중한거거든요. 게다가 친구들과 있는 동안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낸 기분이라 기분이 더욱 좋네요.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핀란드의 학교 이야기

핀란드의 성공적인 교육 비밀을 찾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핀란드 제2의 도시 탐페레(Tampere)에서 교사교육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윤아입니다. 핀란드 교육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자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그럼 스파이?”라고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핀란드에서 활동하는 ‘교육 스파이’입니다. 글·사진 이윤아(제주삼양초 교사)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면 제가 핀란드 탐페레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발표하는 순위나 조사 결과 등 숫자로 제시하는 단순한 정보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만, 친구의 ‘스파이’라는 표현에 동의한 이유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핀란드가 그 비밀을 쉽게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핀란드 교육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지난 1년간 핀란드의 학교를 방문하거나 혹은 한국 문화 수업을 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점을 선생님들께 공유합니다.

쉬는 시간은 진짜 쉬는 시간!

핀란드의 학교 교육 중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이 수업과 수업 사이, 15분간 쉬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Finnish Fridays라는 이름으로 핀란드의 쉬는 시간을 학교 시정에 반영, 학생과 교사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수업이 끝나면 10분 쉬는 시간, 중간놀이라는 이름으로 20~30분 길게 쉬는 시간이 있고, 보통 50분 내외의 점심 시간이 있어 핀란드만큼 휴게 시간이 있는데, 왜 특별한 비법이라고 말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학교 운영을 너무 크게 자랑한다고까지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핀란드 학교에서 실제 쉬는 시간을 보니 한국 학교의 쉬는 시간과는 운영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쉬는 시간은 정말 쉬는 시간입니다. 모든 아이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주 심한 폭풍우가 치는 날이 아니라면 대부분 매일 밖으로 나가 놀이를 해야 하니까요. 쉬는 시간을 넘기는 수업은 드물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는 아이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학교를 방문한 날은 눈이 계속 내려 엄청 쌓였지만 아이들은 날씨에 상관없다는 듯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5~6학년 선배가 1~2학년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 놀이를 가르쳐주며 후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



외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가르치던 우리나라 교실의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 시간이므로 운동장에 나가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말입니다. 신체 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존감, 학업 성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논문을 읽고서도 실제 쉬는 시간과 연결시키는 데 게을렀던 것이죠. 자꾸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실에 앉아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쉬는 시간에 밖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 운동장이 아이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맞닿은 실과 교육

핀란드 학교를 참관하던 중 요리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던 스페인 친구가 “와! 요리 수업이라니, 엄청난데! 역시 핀란드네!” 이렇게 감탄하는 소리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과라는 교과가 있어. 그 교과에서 요리, 목공, 공예 모두 가르치지. 핀란드만 하는 교육이 아니니까 너무 감탄하지 마!”

하지만 교실을 좀 더 둘러보고 더 많은 수업을 참관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크게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수업 시간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조리한 음식을 먹는 과정까지 수업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본 수업에서는 차와 함께 먹는 쿠키를 만들고 있었는데, 쿠키를 굽는 동안 테이블 매트와 앞접시, 포크를 준비하고 테이블 가운데 작은 꽃까지 장식하며 음식 먹는 방법까지 교육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요리 실습과는 너무 달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차와 함께 쿠키를 즐기는 모습에 ‘아, 요리 실습의 끝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적절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목공실은 우리나라의 목공소를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실과 시간의 목공 수업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래서 점점 반 정도 완성된 제품으로 진행합니다. 즉 목공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목공폴 하나 정도로 제품을 붙여 만드는 활동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 핀란드는 전문 목공실에 온 것처럼 전문 도구를 사용합니다. 수업이 가능할까 물었더니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도구를 잘 다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핀란드 선생님들의 믿음이 놀라웠어요. 그 믿음이 진짜 목공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핀란드 대표팀 감독이 뜨개질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 배우셨나 생각했는데, 핀란드 선수 대부분이 뜨개질을 하더군요. 놀랍게도 응원하는 상황에도, 경기 중에도. 핀란드 학교에서 공예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뜨개질과 바느질을 할 수 있고, 간단히 재봉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1학년 학생들이 만든 부직포 인형을 보면 대단한 수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바느질은 물론 단추 달기까지. 노작 교육으로 시행하는 우리의 실과 교육이 핀란드의 교과 생활과 같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이었지요.

탐페레에 있는 슈타이너 학교는 이런 노작 교육이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공 수업을 위해 1년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고르고 베어 1년간 건조한 뒤 그 나무로 이듬해에 이뤄지는 목공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물레와 베틀을 사용해 직접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베틀로 천을 만드는 과정까지 해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자신이 만든 물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은 커피 타임

렘팔라 지역의 학교에 수업하러 갔을 때에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선생님들이 모두 교실을 떠나 교사협의실로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는데, 선생님들의 수다 소리가 교사협의실을 넘어 복도까지 울리더군요. ‘아니, 핀란드 선생님들은 다음 수업 준비는 안 하고 왜 놀고 있지’ 생각했는데, 핀란드 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 교사 간의 활발한 협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교실에 혼자 남아 있는 것보다 교사협의실에서 대화하는 것이 수업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분위기의 교사협의실이 더욱 맘에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쉬는 시간마다 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반과 우리 학년 그리고 우리 학교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핀란드 교육은 세계 최고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초등교사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교육도 핀란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우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교육 스파이’로서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며 핀란드 교육 성공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도 찾아 보고요. 그럼 제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까지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윤아 제주 삼양초 교사
제주교육청의 장기 유학 파견교사로 탐페레 대학에서 교사교육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을 찾아 오늘도 열심히 ‘교육 스파이’ 활동 중이다.



100세 시대가 믿고 맡기는 신탁의 금고

믿을 신(信), 맡길 탁(托), 신탁 형태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무대는 알프스 산중의 아름다운 호텔. 이곳의 단골이었던 마담 디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자, 그의 대리인이 급히 호텔을 찾아온다. 마담 디는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을 호텔 지배인에게 남긴다. 하지만 마담 디의 탐욕스러운 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명화를 빼앗으려고 한다. 사실 아들은 어머니의 유산이 탐나 몰래 독살한 것이다. 다행히 마담 디는 이를 미리 알고 재산을 '신탁'해두었다. 신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유언대용신탁'이다.

믿을 신(信), 맡길 탁(托). 신탁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믿을 만한 기관, 보통은 금융기관에 수탁하는 제도다.

앞서 말한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인데, 생전에는 그 자산을 운용해 생긴 수익을 자기가 받아 쓸 수 있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자신이 지정한 이에게 물려준다. 유언장의 작성과 변경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신탁은 계약의 체결과 변경이 보다 용이하다. 부동산처럼 처리하기 어려운 유산도 위탁 관리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유산을 처리하는 신탁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신탁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다. 미성년 상속자,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신탁도 가능하다. 믿기 어려운 친척에게 유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사후에 유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가족신탁계

약을 통해 꼼꼼히 준비해두었다. 자선단체와 아내, 세 자녀에게 일정 비율로 유산이 돌아갔는데, 특히 자녀들은 30~40세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자산을 물려받게 했다. 갑자기 거액을 상속받아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힘을 키우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다양한 신탁의 현대적 솔루션

최근에는 전통적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 고령층이 혼자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펫 신탁'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가족처럼 살아온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관리 전문 회사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신탁자가 죽은 뒤 그 동물을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동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고령자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 자신이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울뿐더러 남은 자산이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후견인이 보호자와 재산 관리인 역할을 겸하는데, 매년 후견인 지정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시대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인들과의 정서적 관계, 삶의 여유를 즐길 취미,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준비는 말할 것도 없다. 퇴직금을 잘못 굴려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수도 있고, 치매 같은 어려움 속에 존엄성을 잃을 수도 있다. 유산을 돌려싸고 자식들이 다툼을 벌이는 일도, 1인 가구로 살아왔는데 생면부지의 먼 친척에게 유산을 넘겨주기도 싫다. 미국과 일본의 고령층은 '신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요즘, 국내에서도 최근 다양한 신탁 제도가 시니어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하고 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성년후견지원신탁은 법적 후견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이 재산 관리자 역할을 한다. 물론 이때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안전장치는 있다. 치매안심 신탁은 보다 제한된 환경에서 신탁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다. 본인이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금융회사에 재산을 신탁한 뒤 치료비로만 쓰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기부 목적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교나 장학 재단에 기부하고 싶지만 남은 생애에 생활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과연 어느 정도를 기부해야 할까? 고민할 것이 신탁을 이용하면 생전에는 수익금을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자산은 사후에 안전하게 기부할 수 있다. 본인이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공익 신탁'을 파트너 삼아 관리, 운용을 맡길 수도 있다.

100세 시대란 결국 우리가 노화와 죽음을 인지한 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여생을 안정적으로 이어갈지, 사랑하는 후손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신탁은 이런 이들을 위한 금융 솔루션이다. 마지막을 든든하게 보장해줄 수단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자산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시니어들의 자산은 그들의 지난 삶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는 의지는 결국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니깐.



나의 인생 친구, 막걸리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에는 우리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다. 힘들거나 즐겁거나, 언제나 떠오르는 막걸리. 지역 특색이 진하게 들어 있는 만큼 그 맛도 다양하다. 여름철 시원하게 한잔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원픽 막걸리를 골라보자. 글 김영주 일러스트 청운



마지막 주막, 경북 예천 삼강주막

예부터 삼강나루터는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간 길목이었다. 낙동강, 내성천, 금천의 강물이 합해지는 곳이라 삼강이라 불린 이곳의 주막은 1900년경에 지어져 나그네의 휴식처로 이용됐다. 이곳에서는 삶의 서정을 만날 수 있다. 주막의 서정, 주모의 인정, 텅텅한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정겨운 우리네 삶 등 현재 조선 주막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통 주막에서 한잔 걸쳐보자.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27

어머니의 손맛, 복순도가

울산 울주군의 작은 마을, 집안의 전통 방식으로 마을 어른신께 대접한 기양주(家釀酒) 형식의 막걸리는 김정식·박복순 부부의 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로 탄생했다.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대표하는 특징은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는 천연 탄산. 이로 인해 '삼페인 막걸리'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차남 김민규 대표가 설계하고 지은 복순도가 양조장은 발효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일뿐더러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향산동길 48

전북 전주 막걸리 골목

전주는 예부터 술을 빚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인 쌀, 물, 누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제일 처음 막걸리 골목이 형성된 곳은 삼천동, 전주 막걸리 골목의 원조다. 삼천동에는 약 40개의 막걸리집이 늘어서 있는데, 이곳에서는 안주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 이는 막걸리 주전자 값을 지불하면 한 상 가득 안주가 차려지기 때문. 안주는 최소 20가지 이상으로 구성된다. 꼬막정식, 인삼, 장어부터 샐러드, 국, 튀김, 조림, 전 등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으며, 막걸리를 추가 주문할 때마다 새로운 안주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여기에만 있어, 편의점 막걸리

트렌드를 빠르게 감지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편의점에서 막걸리까지 트렌드가 되었다. 간편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의 장점을 살린 것은 물론 이색적인 맛과 종류가 다양해 최근 2030세대의 수요가 늘고 있다. '우리술'의 특소는 알 밤동동과 특소는 고구마동동, '국순당' 아이싱 청포도 등 여심을 저격하는 달달한 막걸리부터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린마을 생막걸리, 국순당 1000억 유산균 막걸리 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점 안주까지 곁들이면 바로 여기가 막걸리 맛집!

막걸리 인사들의 모임, 가평 자라섬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주 축제로, 전국의 우수한 막걸리를 알리기 위해 유명 양조장에서 생산한 막걸리를 현장에서 시음 및 판매한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막걸리를 실컷 마셔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년 트럭'과 협업해 풍성한 먹거리, 콘서트, 가요제 등도 즐길 수 있어 계절 막걸리를 맛보기에 딱 좋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0



이비사
 Ibiza
한 번쯤
일탈의 섬으로

파티의 고향이자 쾌락의 섬. 자정이 지나 열리는 환희의
탈출구. 뻘하고 건전한 여행이 가끔 지켜울 때, 스페인
이비사(Ibiza)는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인 여행지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외



세계의 클러버(clubber)는 이비사에서 여름을 위해 1년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그래 봤자 고작 섬일 뿐인데, 전세계 내로라하는 클럽 중 최고를 선정할 때면 Top 7의 절반은 이비사가 싹쓸이한다(영국 <DJ Magazine> 2017년 발표). 이 놀라운 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누군가의 가슴에는 꿈 같은 자유와 휴양으로, 다른 이에겐 아슬아슬한 유희과 환오로 존재하는 곳.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힙한 섬으로 간다.

때론 원초적인 여행

정확한 스페인어 발음은 '이비싸'. 스페인 내륙에서 약 80km 떨어져 있는 제주도 두 배 규모의 섬으로, 페니키아인이 이곳 문명을 싹틔웠다. 이비사의 풍경은 우리가 떠올리는 전형적인 지중해 휴양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중 흐린 날이 거의 없고, 한겨울 평균기온도 10°C를 웃도는 기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고, 1년 내내 찬란한

태양이 내리쬐는 비옥한 땅에서 자란 올리브나무가 섬을 채우고 있다. 그런 만큼 유럽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중 한 곳이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스페인 지중해의 대표 휴양지가 아니라 유명한 TV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온 박수홍 씨가 현란한 파티를 즐기기 위해 떠났던 곳으로 처음 알았다는 사람이 꽤 있다. 실제로 이곳을 다루는 영상이나 저널을 보면 '지구상 가장 핫한 곳' '원초적인 여행지'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비사 공항에서 시작해 호텔에 이르기까지 술한 클럽과 파티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공항 버스에서 만나 나란히 앉은 레게 머리 청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Are you ready for crazy party? (광란의 파티를 즐길 준비됐어?)"라고 묻는다.

파티의 심장

미친 파티! 틀린 말이 아니다. 몸값이 수억에 이르는 세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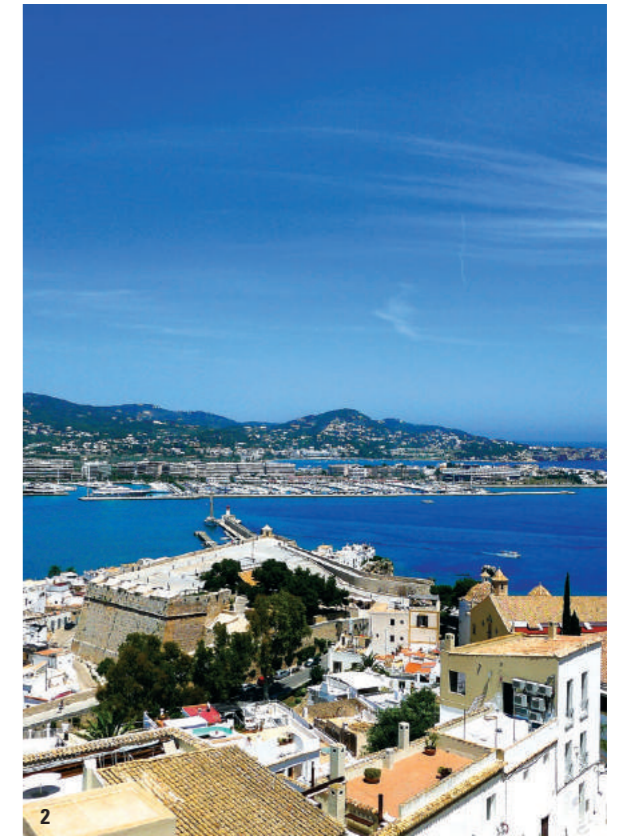
1. 이비사는 유럽인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 중 하나이다. 눈부신 해변은 이비사의 백미.
2. 14~16세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이비사의 올드타운.
3. 파티의 섬 이비사는 또한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공연 아티스트의 실험 무대이기도 하다.

적 명성의 DJ들이 매년 여름 이 섬에 모여든다. 이비사 클럽이 문을 여는 5월 말 오프닝 파티나 9월 초 클로징 파티는 입장료만 십수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수만 명이 이 파티를 위해 이비사에 운집한다. 아울러 오프닝 이후 클럽들은 시즌 내내 매일 밤 수천 명이 넘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많게는 한 클럽이 1만 명을 수용한다니 직접 보지 않으면 짐작하기 어려운 규모다. 이 중에서도 데이비드 게타 같은 최고 DJ의 각축장으로 알려진 클럽 '파차(Pacha)', 세계 최고의 풀 파티로 손꼽히는 '우슈아아(Ushuaia)', 거품 파티로 악명(?) 높은 '암네시아(Amnesia)',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클럽 '프리빌리지(Previlige)' 등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

특히 나는 프리빌리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백화점 크기쯤 되는 거대한 빌딩이 통째로 클럽이어서 마치 성인을 위한 한밤의 놀이공원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프리빌리지가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무려 1만 명 이상. 클럽 안에 3개의 초대형 홀과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과 수십 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앙 홀에 수천 명이 어우러져 춤추는 사이로 화려한 불 쇼가 펼쳐지고, 인공 눈과 꽃가루가 쏟아져 내리는 장관! 꼭 댄스나 클럽 문화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도 음악과 몸과 젊음이 폭발할 듯 들끓는 이 공간은 충분히 짜릿하게 다가온다.

다른 시간의 섬

지중해에서 즐기는 요트 파티, 백사장에서 펼쳐지는 해변 파티, 수영장에서 만끽하는 풀 파티, 호텔에서 개최하는 라운지 파티까지. 이비사에서의 파티는 밤낮없이 이어지지만 본격 게임은 한밤이 훌쩍 지나야 열린다고 볼 수 있다. 대형



2



3



4. 이비사에는 힙합부터 레이브, 레게와 제3세계 음악까지 세상 모든 음악이 모여든다. 단, 춤추기 좋은 음악이라면.
5. 세계 최대 클럽 '프리빌리지'.
6. 달트빌라 성곽에 서면 지중해가 발아래 가득 펼쳐진다.



클럽이 밤이 깊어야 오픈할 뿐 아니라 손님들 역시 자정이 넘어 모여들기 시작해 새벽 3~4시에 이르러야 분위기가 정점에 오르는 것. 아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든다. 축제를 위해 이 섬에 온 사람들에게 이비사의 낮과 밤은 우리와 정반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비사를 가장 이비사답게 즐기고 싶다면, 오후쯤 눈을 뜨고 일어나 저녁까지 늘어지게 해변에 누워 있다 밤이 깊으면 기지개를 켜고 파티를 시작하면 된다.

한편, 이런 이비사의 클럽 파티와 자유분방한 문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전문가들은 1930~1950년대 스페인 본토 예술가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찾아 이비사에 유입된 때를 그 출발로 본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들어 유럽에서 반전(反戰) 운동이 붐을 이뤘는데, 그 물결을 타고 당시 평화, 자유, 대안 공동체 등의 가치를 찾아 헤매던 히피와 보헤미안, 다양한 소수자가 대거 이비사로 넘어온다.

이들을 위한 클럽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는 다시 젊은 영국인들을 이비사로 불러들인다. 수요가 폭발하며 더 많은 대규모 클럽이 개장하는데, 1990년대로 넘어오며 테크노, 트랜스, 하우스 등 EDM(Electronic Dance Music)의 바람과 함께 이비사의 문화는 활짝 꽃을 피웠다. 많은 음악 평론가, 특히 EDM 전문가들은 세계 유수의 EDM 축제가 지금처럼 발전하는 데 이비사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클럽 너머의 정경

그럼 이 섬은 파티나 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 서두에 언급했듯, 이비사는 유럽 사람들이 손꼽는 대표 휴양지 중 하나다. 먼저, 이비사 시티의 구시가지. 1990년대 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달트빌라(Dalt Vila)는 수백 년 전 세워진 성벽 마을로 아찔한 암벽 위에 조성돼 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시간 너머의 도시를 걷다 보면 골목과 골목이 미로처럼 펼쳐진다. 길이 끝나는 곳 절벽 꼭대기에 서면, 이비사 항구와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눈멀도록 아름답게 안겨 든다.

아울러 지중해와 섬을 잇는 40개 이상의 해변과 백사장은 이비사의 또 다른 보석이다. 2km 넘게 펼쳐진 해변길 플라야덴보사(Playa d'en Bossa)와 에메랄드를 품은 모래사장



딱 한 뺨의 일탈,
딱 한 호흡의 자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대담한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잠시 따분한 선을
넘어갔다 오는 것.
여름밤의 꿈 같은
자유와 환희라도,
그 섬에 잠시 젖어 있는 것.

칼라콘타(Cala Conta),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포르멘테라(Formentera)섬에 이어지는 바닷길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바람을 쐬다 어디에서 마음을 빼앗겨 하루를 다 보내게 된대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섬이다.

우리가 필요한 건 어쩌면

세계 최대 클럽에서 세계 최고 DJ가 쏟아내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 파티가 이어주는 새로운 인연과 만남이 주는 자극. 가장 자유로운 섬 도처에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한 유희들. 혹은 잠시 낮과 밤을 바꿔 사는 시간이나 무엇에도 조바심 없이 태양과 지중해와 모래사장에 나를 던져둘 수 있는 마음의 틈.

무엇이 이비사를 특별하게 하는가? 그건 어쩌면 저 거대한 클럽이나 눈부신 백사장보다는 일상의 탈출을 향한 우리

숨은 욕구일지 모른다. 딱 한 뺨의 일탈, 딱 한 호흡의 자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대담한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잠시 따분한 선을 넘어갔다 오는 것. 여름밤의 꿈 같은 자유와 환희라도, 그 섬에 잠시 젖어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천국일지도 모른다.

이비사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섬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은 5월 말부터 9월까지만 문을 열어요. 그 외에는 비수기랍니다. 그러니 이비사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여름 시즌에 방문하길 추천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은 극성수기로 호텔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속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대형 클럽은 자정이 넘어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야 '이비사 디스코 버스'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변화가, 주요 호텔, 클럽을 순회하며 운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포르멘테라섬은 이비사 남쪽 피게레타스(Figueretas) 해변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신들의 땅 그리스에서 온 보물

그리스 보물전: 아가멤논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말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끊임없는 대화를 위한 현재와 과거의 가장 고귀한 연결 고리, 그리스의 보물이 한국 땅을 밟았다.
글 강은영 사진 그리스문화체육부 · ©Hellenic Ministry of Culture & Sports



그리스의 국보급 유물, 한국으로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하나인 미노아문명을 품고 있는 땅이다. 크레타섬, 테살로니키, 로도스, 코린트 등 이름만 들어도 전설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처럼 신화의 땅으로 불리는 그리스 전역의 24개 박물관에서 360여 점의 유물이 모였다. 이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 <그리스 보물전: 아가멤논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까지>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보급 유물이 한국을 찾는 최초의 전시로, 신석기시대 유물부터 그리스 문명이 꽃을 피운 중흥기까지의 유물을 다루고 있다. 선사시대 에게해 문명부터 서구 민주주의의 기원을 이룬 도시국가, 정복 전쟁을 이뤘던 알렉산드로스대왕까지 그리스 문명의 발전과 변천을 시대 순서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대리석 조각



<황소머리 장식의 현주잔(리톤)> 기원전 1450년경 이라클리온 고고학박물관



<적화식 레키토스> 기원전 470~460년 아테네 국립고고학박물관



<아가멤논의 황금가면(복제품)> 미케네 고고학박물관

뿐만 아니라 도자기, 금속 조각, 장신구, 금은, 상아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유물을 전시하는 만큼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손색없다. 6000년 역사를 품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신화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볼거리이기 때문이다. 영화나 책에서 본 트로이전쟁의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와 관련한 유물, 신화 속 올림포스 신들의 조각상과 각종 유물, 구전되어온 그리스신화를 집대성한 유랑 시인 호메로스의 두상 등을 만날 수 있어 방학

을 맞은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전시가 될 전망이다.

보물로 시대를 읽다

오늘날 산토리니섬에 있었던 아크로티리 출토지에서 발견된 작품 <아크로티리의 소년 벽화>는 에게해 문명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벽화로 알려져 있다. 양손에 물고기를 가득 들고 있는 소년을 통해 우리는 당시 미노스인의 의식주와 삶이 바다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나체를 드러내고 있는 청년 조각상 ‘봉헌용 쿠로스상’을 통해서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nous hugines ev somati huginei)’는 보편적 가치 아래 육체를 가꾸고 이를 한껏 뽐냈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이와 작별 악수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묘비석’을 통



<디오니소스 테라코타 흉상> 기원전 380~360년 카펠로폴로스 박물관



<해양 문양 양식 항아리> 기원전 1450년 이라클리온 고고학박물관

해서는 생의 이별 앞에 눈물 젖은 얼굴 대신 담담한 악수로 안녕을 말한 그리스인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 유물을 통해 과거 생활상을 살펴보고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운다. 교과서나 책을 통해 어렵듯이 상상만 하던 역사 속 유물,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류의 보물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전시 정보

기간 ~2019. 9. 15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5000원
청소년(만 13~18세) 1만1000원
유아(만 48개월 이상) 9000원

사람과 책, 책과 사람을 잇는 사랑의 이음 물결

책 마을 해리

마법을 부린다. 바다 가까운 곳, 서해 바닷바람이 탈 없이 불어오는 것마저 마법 같다. 마법사는 책마을해리. 읽고, 쓰고, 퍼내며 책으로 또 다른 세계를 열고 있다. 그 책은 다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징검다리가 된다. 사람과 책,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킨다. 글 진미현·정수희 사진 한상무



다시 학교, 다시 책

완전한 여름, 소리 없이 뜨거운 태양이 빛난다. 대지는 초록 빛을 넘어 푸름으로 뒤덮인다. 전북 고창에 들어서자 진하게 녹빛을 띤 세상이 반긴다. 녹빛의 길을 구불구불 오래 달리니 플라타너스나무가 보인다. 반갑다는 듯 인사하는 여름 바람에게 인사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니, 여기서. 드디어 '책마을해리'에 다다랐다.

플라타너스 다섯 그루가 풍성한 잎사귀를 뽐내는 이곳의 옛 모습은 나성초등학교였다. 1939년 건립한 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교실에서 왁자지껄 떠들고, 운동장에서는 신나게 뛰놀던 곳이었다. 강산이 변하면 학교도 변할 수밖에 없다. 나성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1년 폐교 위기에 놓인 것.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는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내려왔다. 알고 보면 그 이유는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나성초등학교는 이대건 대표의 증조부가 건립한 학교로, 일제강점기 마을을 위해 기부해 만든 곳이었다. 이 대표는 이곳이 다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아이들이

천진난만 뛰놀 수 있는 곳이길 바랐다. 누구나 책을 읽고 쓰고 퍼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그리고 결심한다.

그렇게 나성초등학교는 책마을해리로 다시 태어났다. 대표라는 직함 대신 촌장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빛깔을 지닌 책마을해리를 만든다. 마법을 부린 듯 '세상 모든 책과 이야기들의 학교'라는 이름을 걸고서.

곳곳에서 책이 자라는 곳

책마을해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다양한 색채의 건물보다 더 알록달록한 클라이밍 벽이 자리하는 곳, 한눈에 봐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일 것 같은 곳, 바로 '동학평화도서관'인 트리 하우스다. 전북 고창과 정읍이 동학의 발원지인 것을 의미해 이름을 지은 이곳에는 동학, 평화와 관련한 책을 모아 놓았다.

놀라운 점은, 트리하우스가 책마을해리의 교육 프로그램인 '건축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힘을 보태 만들었다는 것. 같은 모양새 없이 모두 다른 형태를 지닌 클라이밍 판은 다름이 모여 하나의 세계를 만든 것 같다. 각기 다른 성향과





책마을해리

📍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서산길 88
☎ 070-4175-0914

개성을 지닌 아이들의 손때가 묻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말이다.

어른을 위한 공간도 있다. 바로 오로지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책감옥’이다. 일상에 치여 책 읽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 책감옥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스스로 이 공간에 들어가 갇혀 책 읽기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책에 집중하기 위해 핸드폰을 끄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책감옥 안에는 대화소설을 비롯해 전집이 다양하다. 책을 다 읽기 전까지 나갈 수 없도록 문은 밖에서 잠근다. 간식을 넣는 구멍이 있으니 걱정은 말자. 통제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책 읽는 시간을 위해 스스로를 감금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일 테다.

바람언덕에서 책을 보거나 쉬는 것도 권한다. 이름과 걸맞게 시원한 서해바다의 바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다. 특히 이곳은 무더운 여름에 빛을 발한다. 그늘에서 있으면 바닷바람을 맞이할 수 있으니 축복받은 공간이다.

읽고, 하고, 쓰고, 펴내는

이처럼 책마을해리에서는 책을 읽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이 책을 쓰고 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명맥이 끊긴 고창한지를 다시 만들어보고, 활판인쇄체험을 통해 활자가 가진 힘을 보고 느낄 수도 있다. 이는 이대건 총장의 생각이다. 책을 보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우리만의 책마을 만들기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

공간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지닌다. 책마을해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힘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본질에서 나타난다.

이곳에선 누구나 작가가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누구나 읽고, 경험하고, 쓰고 펴낼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출판학교’를 비롯해 ‘청년출판대학’ 등 다양한 연령층을 품으며, 평생 논밭 일만 해오던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밭매다 탄짓거리>라는 책으로 엮기도 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없어질 뻔한 우리의 삶을 책으로 펴낸다. 책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을 놀이로 함께 배우며 활자 꾸미기와 자신만의 경험을 모아 책 기획하기, 글·그림 만들기, 편집하기, 전통 방식으로 제본하기 등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옛 방식부터 현대적 방식까지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내리는 선한 영향력의 씨앗

책마을해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대건 총장은 책마을해리의 프로그램을 공교육으로도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그중 이대건 총장이 바라는 것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출판 프로그램. 벌써 전북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등 전국 각 지역의 교사들과 몇 차례 출판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책을 만든 교사들은 삶이 바뀐다. 책이 지닌 원천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생김 경험은 교실로 이어진다.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뀐다. 더 나아가 학교가 바뀌고 아이들이 변한다. 그리고 가정이 달라진다.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책에 있다. 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생김 그리고 사랑. 이는 새로운 소통의 이음이 되어 미래 세대를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책에 있다. 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생김 그리고 사랑. 이는 새로운 소통의 이음이 되어 미래 세대를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놀이 공부하며 느끼며 꿈꾸라

운동장의 이름은 ‘책뜰’이다. 요즘 현대적인 미를 살린 운동장이 아닌 옛 운동회 정취가 살아 있는 곳이다. 이 운동장에서는 매년 가을 ‘책영화제’를 진행한다. 푸르르던 벼가 노랗게 익어갈 무렵 시작되는 책영화제는 당연히 축제로 불린다. 영화의 원천을 찾아가는 책과 영화의 모험이 2박 3일 동안 앞다투어 펼쳐진다. 책이 원작인 영화 혹은 영화가 원작인 책 등 전 세계 나라의 30여 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돛자리를 펴고 어떤 이는 앉아서, 어떤 이는 누워서 자유롭게 축제를 즐긴다. 친구와 연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시나브로 가을밤을 물씬 느낄 것이다.

이처럼 책마을해리의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청소년동학캠프’는 2박 3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평화 그림책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배운 뒤 동학농민군 숙영체험을 하고 유적지 답사를 다녀온다. 즉 동학농민군이 되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활동하며 느낀 점은 스토리를 만들고, 평화 그림 일기를 써 평화 그림책을 만든다. 언제나 모든 프로그램은 스스로 책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019년 9월 1일 장기저축급여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이자율 3.74%(연복리)로 0.14p 인상
납입한도 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

1971년 6월 시행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장기저축급여 제도가 5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는다. ▲이자율 인상 ▲상한구좌수 확대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이라는 큰 틀 아래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저축급여의 면면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Q. 장기저축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장기저축급여는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국내 최장기 적금 상품이다. 가입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돼 회원으로서 대여·보험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0~3%대로 저율과세된다는 점이다. 시중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체의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해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2019년 9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이자율)이 기존 3.60%에서 3.74%로 인상된다. 또 기존에는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최고 급여율이 적용됐으나, 올해 9월 이후 납입하는 원금부터는 퇴직 시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최고 급여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원리금 계산 방식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여율 (이자율) | 연복리 3.60%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 | 연복리 3.74% (퇴직 시) |
| 원리금 계산방식 | 연배율제 (원금 × 납입기간별 배율) | 이자율제 (시중 금융기관과 동일) |
| 상한구좌수 (월납입한도) | 1000구좌(월 60만원) | 1500구좌(월 90만원) |



따라서 앞으로는 시중 금융 상품과의 비교가 쉬워지고, 월별로 이자가 균등한 비율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상한구좌수가 기존 1000구좌(월 60만원)에서 1500구좌(월 90만원)까지 확대된다.

Q. 원리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간단히 말해 배율제에서 이자율제로 변경된다. 기존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을 구할 때는 원금에 납입기간별 배율을 곱해 계산했다. 예컨대 월 30만원씩 25년간 총 9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0만원×1.610(3.60%, 25년차 배율)=1억 4490만원'으로 원리금이 계산된다. 이는 장기저축급여가 처음 시행된 1971년의 전산 수준으로는 복잡한 승수 계산이 어려워 미리 납입기간별로 배율을 계산하고, 이를 원금에 곱해 원리금을 계산하는 '배율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배율제 방식은 급여율(이자율)이 바뀌지 않으면 계산이 간편하지만, 급여율이 바뀌면 별도의 수리적 보정이 필요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배율이 바뀌는 연 단위로 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배율제를 사용하던 타 공제회도 이미 '이자율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자율제는 원금에 (1+이자율)^{기간}을 곱해 원리금을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12개월, 24개월과 같이 연 단위로 납입 시 두 방식의 원리금은 동일하나, 연 미만의 개월이 있을 경우 월별로 이자가 균등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에게는 새로 도입하는 이자율제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Q. 변경 내용은 2019년 9월 이후 가입하는 신규 회원부터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다. 변경 내용은 모든 공제회 일반회원에게 적용된다. 2019년 8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산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며, 2019년 9월 이후 납입한 금액은 새로운 계산 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한다.

Q. 상한구좌수 확대는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 아닌지?

아니다. 공제회는 최근 5개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 2018년 말 기준 준비금적립률 100%를 상회하고 있다. 상한구좌수를 확대해달라는 회원의 요청에 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더 큰 혜택을 환원하기 위한 측면이 더욱 크다.

증좌를 원할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의 인터넷 창구-저축-신청-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재무 현황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자산 | 24.9조 | 26.7조 | 29.2조 | 32.5조 | 34.6조 |
| 손익 | 220억 | 1085억 | 1723억 | 4452억 | 2850억 |
| 준비금 적립률 | 94.6% | 95.5% | 96.9% | 99.6% | 100.2% |

Q. 제도가 개선되면 탈퇴 후 재가입해도 불이익이 없나?

퇴직(정년, 명예, 일반, 임기만료)으로 장기저축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2019년 9월 1일 이후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한다. 재직 중 임의로 탈퇴할 경우 원금은 100% 지급되나 부가금(이자)은 다음과 같이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기저축급여 탈퇴 시 원리금 지급률

| 가입기간 | 원리금 지급률 |
|-----------------|------------------------|
| 5년 미만 |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4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5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60%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원금 100% + 부가금(이자)의 70% |
| 20년 이상 | 원리금 100% |

은퇴 앞둔 교직원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 퇴직생활급여

인생의 전환점인 은퇴를 앞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중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퇴직하는 공제회원 2명 중 1명이 가입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글 편집실



2015년 3월 출시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는 제도다. 퇴직 시점에 단 1회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하면서 가입할 수 있다.

퇴직하는 회원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는 회원의 비율을 뜻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전환 비율은 출시 첫해인 2015년 21.7%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증가해 2016년 35.4%, 2017년 49.3%, 2018년 49.9%로 상승세를 나타내더니, 올해는 6월 말까지 퇴직회원 9898명 중 53.0%인 5247명이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2만2539명의 퇴직회원이 1조8893억원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8382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회원은 60명이나 된다. 최고액은 2억2700만원으로 현재 2명의 회원이 가입 중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어느새 퇴직회원 2명 중 1명이 가입하는 인기 상품으로 발돋움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연복리 2.99%의 높은 급여율(변동금리)과 0~3.46%의 낮은 이자소득세를 꼽을 수 있다. 시중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높은 데다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돼 다른 연금형 상품보다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더블 혜택'의 매력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중도해약수수료, 운용수수료를 비롯한 일체의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도 실수령액을 높이는 데 일

조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특징(분리과세)과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높은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퇴직 후 여유 자금 운용 위한 고이율의 '퇴직생활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퇴직회원을 위한 제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퇴직회원의 노후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 총 4만9794명의 회원이 5조8168억원을 예치 중이다.

노후의 품위를 한층 높이는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해 공제회 특별회원이 되면 공제회 직영 호텔 및 한화·대명리조트 등의 숙박 시설과 The-K소피아그린(골프장), 의료기관 할인 등 재직 시 누리던 회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콘서트, 여행 등 특별회원만 대상으로 하는 'The-K은빛동행'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복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가입은 공제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대표전화(1577-3400)와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생활급여

|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지급방법 | 급여율(연복리) | 이자소득세 |
|--------|--------------|--|--------------|----------------------|--------|
| 부가금형 | 없음 | 500만 ~ 3억원 | 매월·매년 이자 지급 | 매월 2.67% 매년 2.70% | 15.40% |
| 확정 연금형 | 5/10/15/20년제 | | 매년·매월 원리금 지급 | 2.99% | |
| 적립형 | 3/5년제 | 5만 ~ 1억원 • 3년제: 월 277만원 • 5년제: 월 166만원 | 만기시 원리금 지급 | 2.70% |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퇴직 및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가입금액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이율 연복리 2.99%(변동금리, 세전, 2018.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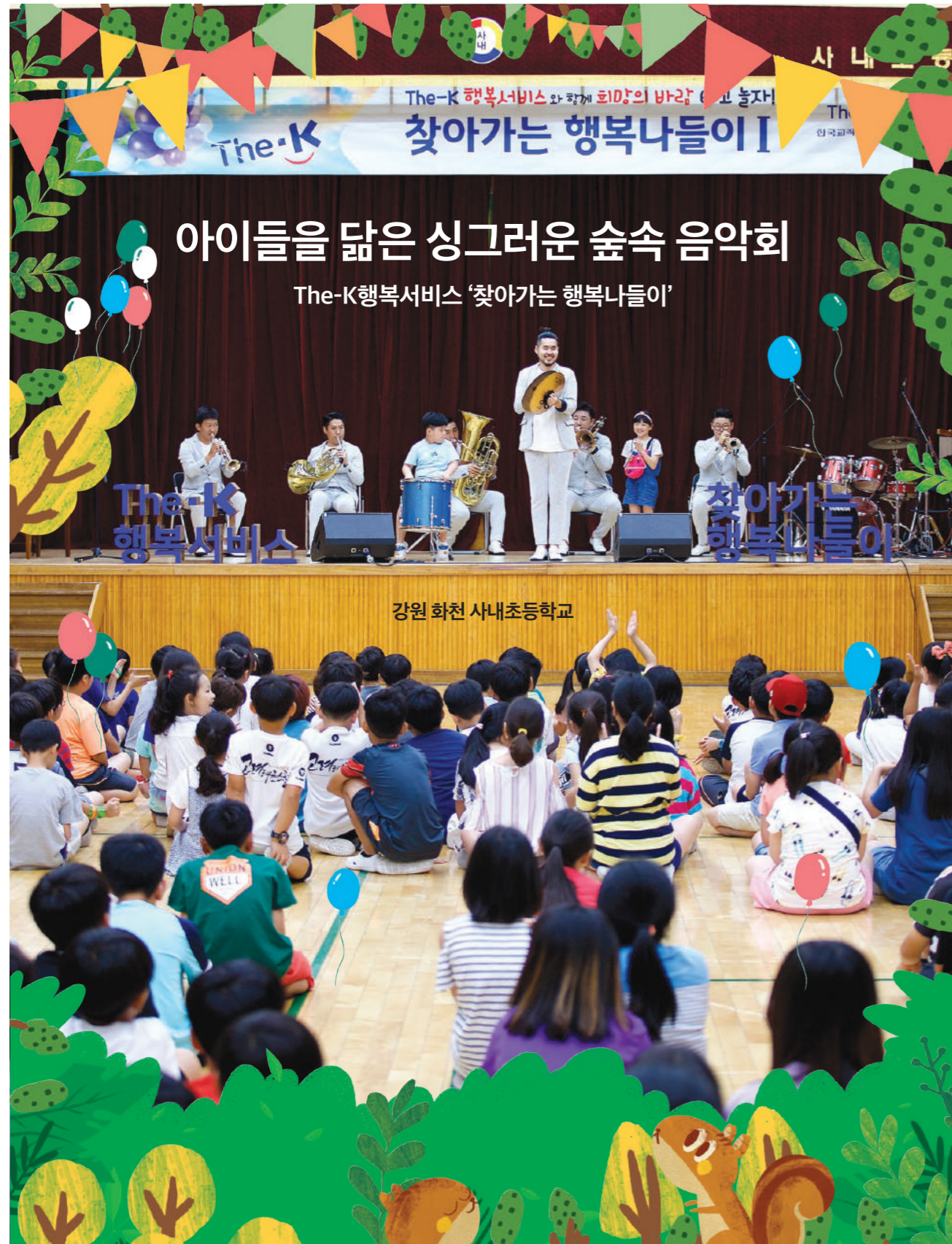
가입기간 5/10/15/20/25/30년

지급방식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분할지급), 연지급·월지급 방식 선택 가능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장점

- 이자소득세 저율과세**
(소득세법 제63조)
- 안전성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
- 수수료 일체 없음**
(중도해약수수료 등)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소득세법 제14조)
- 본인 회원 혜택 유지**
(특별회원 가입 기념품, 다양한 제휴시설 할인 등)

다양한 제휴시설 할인
 특별회원 가입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



아이들을 닮은 싱그러운 숲속 음악회

The-K행복서비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강원 화천 사내초등학교



사내초 320명 전교생이 작은 강당 안에
속속 모여들었다.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The-K 캐릭터들이 아이들을 반기며
'찾아가는 행복나들이'의 문을 열었다.

산으로 폭 안긴 강원 화천 사내초등학교에서 흘러나오는 연주 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간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화예술 경험이 적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자 The-K행복서비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를 진행한 것. 이날은 브라스 밴드가 사내초를 찾았다. 아이들의 박수 소리는 타악기가 되고, 웃음소리는 현악기가 된 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로 더욱 싱그러운 행복나들이였다.

글 강나은 사진 장병국

브라스밴드가 찾은 숲속 학교 공연장

사내초 320명 전교생이 작은 강당 안에 속속 모여들었다.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The-K 캐릭터들이 아이들을 반기며 '찾아가는 행복나들이'의 문을 열었다. 공연 팀은 '퍼니밴드'. 브라스 밴드로 드럼, 트롬본, 트럼펫, 튜바, 호른 등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금관악기들의 합주를 선보이며 웅장한 연주로 다가왔다.

박자와 멜로디를 따라 각기 다른 악기가 어우러지며 숲속 학교를 음악으로 풍성하게 채워나가자 아이들은 퍼니밴드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눈길을 빼앗겼다. 무대로 올라오면서 연주한 곡은 'Just a Closer Walk'이라는 활기차고 신나는 곡으로,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흥겨움을 선물했다. 싱글벙글 웃음이 멈추지 않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까지 다 함께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췄다.

"금관악기를 연주하는 퍼니밴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음악에 박수 치는 학생들은 없었어요."

안종민 튜바 연주자의 소개 인사가 끝나자 또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그러자 다시금 안종민 연주자는 "방금도 박수 치는 타이밍이 완벽하고요"라며 화답했다. 센스 넘치는 말솜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본격적인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익숙한 멜로디를 비롯해 곡이 바뀔 때마다 박자에 맞춰 아이들의 박수 박자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박수로 연주를 완성했다. 이에 신이 난 퍼니밴드는 발을 구르기도 하고, 악기를 위로 올렸다, 바닥으로 내렸다 하면서 아이들의 귀는 물론 시선마저 행복하게 만들었다.

"혼자 연주하는 것을 독주라고 하고, 둘이 연주하는 것을 이중주라고 하죠. 저희는 쇠로 만들어진 악기를 5명이 연주하고 있어요. 이런 연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연주가 끝나자 무대에서는 퀴즈 쇼가 열렸다. 여기저기에서 손드는 아이들 중 첫 번째로 손든 아이가 "금관 5중주!"라고 크게 외쳐 정답을 맞히며 즐거운 시간을 이어갔다.



이제는 행복 역으로 기차 타고 여행을 떠날 시간.
기차를 연상하며 만든 곡인 만큼 경적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도 주먹 권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합주로 이뤄낸 우리의 하모니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퍼니밴드는 빠른 템포가 돋보이는 곡을 선보이기도 하고, 영화음악으로 쓰인 스윙재즈를 연주하기도 했다. 리드미컬한 스윙재즈 음악에 퍼니밴드가 다 같이 춤추듯 몸을 움직이자 또 한 번 아이들의 함성이 뒤섞였다. 마치 1900년대 미국에 있는 한 재즈 바에 온 듯 모두가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꿩길 듯 이어질 듯, 또다시 끝날 듯 이어지는 연주가 아이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나설 차례였다. 모든 아이가 합주에 참여하고 싶어 해 멤버 영입이 쉽지 않았지만, 선착순으로 재빨리 손든 두 아이가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임우영 학생은 트라이앵글, 최가을 학생은 작은 북을 맡아 합주에 참여했다. 연주 내내 진지한 모습으로, 때로는 웃음 띤 모습으로 연주에 임한 두 학생. 나아가 사내초 전교생에게도 이번 공연은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

이제는 행복 역으로 기차 타고 여행을 떠날 시간. 기차를 연상하며 만든 곡인 만큼 경적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도 주먹 권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행복이 가득했던 기차 여행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금관 5중주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보았다.

퍼니밴드는 바람을 천천히 불면 저음이 나고 세계 불면 고음이 난다고 알려준 뒤 각각 악기의 매력을 발산했다. 멜로디를 연주하는 트럼펫, 음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트롬본, 세상에서 가장 긴 악기인 호른, 저음을 내는 튜바와 박자를 책임진 세트 드럼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매력적인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두가 모여 연주한 마지막 곡은 힘찬 행진곡이었다. 마지막 곡인 만큼 모든 연주자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아이들이 뻗은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악수해주었다. 곡이 끝나자마자 강당 안에 ‘앙코르’가 울려 퍼졌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퍼니밴드는 차마 무대를 내려오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연이어 앙코르곡을 준비했다.

특히 지휘자가 꿈인 드럼 연주자가 앞으로 나서 지휘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할 수 있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지휘가 엉망이었던지 박자가 빨라지기를 반복했다.



아이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박수로 연주를 완성했다.
이에 신이 난 퍼니밴드는 발을 구르기도 하고,
악기를 위로 올렸다, 바닥으로 내렸다 하면서
아이들의 귀는 물론 시선마저 행복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웃자고 만든 공연은 아이들의 배려로 감동적인 공연이 되었다. 앙코르곡이 끝나고도 앙코르 요청이 쏟아져 두세 곡을 더 연주하기도. 계속적인 앙코르 요청에 Kang 춤을 출 것만 같은 곡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무대를 마쳤다.

흥겹게 몸을 흔들고 까르륵 웃음이 터지도록 즐기는 동안 새로운 세상을 만난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돋보였다. ‘찾아가는 행복나들이’의 시간은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과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아이들의 문화적 상상력은 한 뼘 더 자라났을 것이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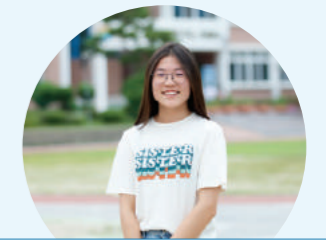
안종민 튜바 연주자

The-K행복콘서트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행복한 주제로 공연하다 보니 더 즐기면서 연주합니다. 특히 이번 사내초 친구들은 호응을 잘해줘 기쁘게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덩달아 제가 더 뿌듯한 공연이었습니다.



정은순 사내초 교감

저희 사내초등학교가 예술 거점 학교인 만큼 오케스트라 교육과 발표도 하지만 악기 연주를 자주 접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행복나들이’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기회가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나들이’ 그 이름 그대로네요.



김태은 학생

학교에서 클래식을 들려준다고 하셔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딱 맞춰 재미있게 공연해주시고 악기의 특성도 기억에 남게 잘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훌륭한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호텔리어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The-K호텔서울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지난 6월 18일, 서울 마곡중학교에 재학 중인 호텔리어의 꿈을 키우는 15명의 학생이 The-K호텔서울에 모였다. 'The-K호텔서울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일터이자 배움터가 된 The-K호텔서울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소개하며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했다. 이날 아이들에게 호텔리어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었다. 그 현장을 <The-K 매거진>이 함께했다.

글 강나은 사진 김희진



호텔에서 가장 핵심인 숙박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객실부다. 권창숙 대리는 전체 252실이나 되는 객실 중 특실, 일반실, 단체실의 차이와 객실부 내에서도 나뉘어 있는 각각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연희팀 강명호 대리가 식사와 음료를 준비하는 식음료부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식음료부에서 중요한 연회 서비스를 손꼽으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예약에 따라 행사장을 준비하고 필요한 음식과 음료, 기타 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꼼꼼한 일정 체크와 상황에 맞는 신속한 업무 대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진로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몇 가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체험에 나섰다.

The-K호텔서울에서만 가능한 호텔리어 현장 체험

오전 10시, 이미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거나 한창 관심을 두고 있는 아이들이 The-K호텔서울에 하나둘 모였다. 아이들은 호텔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변을 둘러보기 바빴다. 그동안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던 호텔리어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연신 들뜬 듯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호텔리어 진로 체험은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 등 호텔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 부서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론 수업을 한 뒤 객실과 연회장, 조리실을 돌아보고,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는 현장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론 수업의 시작은 객실부를 담당하는 권창숙 대리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호텔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손님이 편히 쉴 수 있게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리어 진로 체험은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 등 호텔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 부서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론 수업을 한 뒤 객실과 연회장, 조리실을 돌아보고,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는 현장 수업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우는 호텔 업무

이론 수업을 마치고 이제 현장으로 나설 차례. 강명호 대리는 연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대규모 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랜드볼룸을 찾았다. 연단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고, 수백 개에 이르는 테이블에 접시와 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마침 오늘 오후에 11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여기에서 열립니다. 일반 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하기는 어렵겠죠?”

이어 권창숙 대리의 안내를 받으며 객실부로 이동했다. 로열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부쩍 말이 많아졌다. “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원래 호텔은 집보다 좋은 곳이야”라는 아이들의 대화에 권창숙 대리가 웃음을 지었다. 집보다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객실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녹지 공간이 펼쳐진 전망을 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보기도 하며 로열 스위트룸을 한껏 즐긴 아이들은 이어 비즈니스 더블룸과 일반실도 둘러보며 각기 다른 객실의 용도를 몸소 체험했다.



하루 동안 The-K호텔서울의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체험해본 아이들은 이제 호텔리어가 되는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순서로는 조리부를 체험하기 위해 조리실로 들어섰다. 오늘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볼 메뉴는 바로 The-K호텔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샌드위치. 전기용 셰프의 팀대로 아이들은 빵이 구워져 나오자마자 지붕처럼 식빵을 서로 기대어뒀 빵이 눅눅해지지 않게 했다.

본격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진짜 셰프가 된 것처럼 조용히 요리에 집중했다. 조리실에서는 ‘속삭’ 하는 버터 바르는 소리만 났다. 식빵 위에 양상추, 햄, 치즈, 달걀, 피클을 올리고, 그 위에 머스터드와 데리야키 소스를 양면에 바른 빵을 덮었다. 다시 그 위로 로메인, 베이컨, 토마토, 닭고기를 올렸다. 전기용 셰프는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와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해주었고, 아이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컨과 닭고기, 채소 등을 더 준비해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든 샌드위치를 예쁘게 잘라 용기에 담자 꽤 그럴싸해 보였다. 아이들은 직접 썼던 조리모와 자신이 만든 샌드위치를 받아 들고 레스토랑을 찾았다. 오늘 진로 체험의 마지막 순서인 The-K호텔서울의 파스타를 맛보기 위해서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파스타를 음미하며 ‘The-K호텔서울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동안 The-K호텔서울의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체험해본 아이들, 이제는 호텔리어가 되는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 호텔리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MINI INTERVIEW



권창숙 The-K호텔서울 객실부 대리

The-K호텔서울에 대해 설명하며 한 번 더 우리 호텔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아이들이 오늘 경험한 것을 토대로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작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탁효진 서울 마곡중 교사

진로 체험으로 The-K호텔서울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호텔리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흥미를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호텔리어라는 장래 희망에 대한 목표 의식도 높아졌길 바랍니다.



박민지 서울 마곡중 학생

호텔리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체험을 통해 잘 알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제가 직접 실습할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남도의 진면모를 제대로 즐기려면

The-K지리산가족호텔 휴스टे이



도계(道界) 넘어 곳곳을 탐하다

보통 삼도봉은 3개의 도(道)가 만나거나, 3개의 도에 걸쳐 있는 산봉우리를 칭한다. 전국 각처에 삼도봉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가 지리산 삼도봉이다. 전북 남원 삼내면, 경남 하동 화개면, 그리고 전남 구례 산동면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위치한 곳은 구례 산동면이다. 전남에 위치해 있지만 도계 넘어 지역을 오가기에 어려움이 없다. 실제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자동차로 남원 광한루까지 30분, 하동 화개장터까지 40분, 순천 선암사와 담양 죽녹원까지 1시간, 전주 한옥마을까지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남도 곳곳을 둘러보고 싶다면 The-K지리산가족호텔을 베이스캠프 삼아 머무는 것을 추천한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유황 온천

물론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만 머물러도 좋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객실 창을 통해 마주하는 포근하고도 위엄 있

는 산세부터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이다. 지리산온천 관광특구에 자리 잡아 지역 주민도 자주 찾는 온천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곳의 온천수는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황천이다. 예로부터 피부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3월과 10월, The-K지리산가족호텔에 머문다면 꼭 이른 아침 고요한 마을길을 냇물 소리와 함께 거닐어보길 권한다. 잔비가 흩뿌리거나 여린 안개에 쌓여 있다면 더 좋다. 또 봄이면 눈앞의 모든 것을 노랗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가 지친인 산수유마을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여유가 있다면 지리산 노고단(해발 1507m)으로 산행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백두대간에 속하는 노고단은 천왕봉(1915m), 반야봉(1734m)과 더불어 지리산 3대봉 중 하나. 여름철 노고단을 추천하는 이유는 20여 종의 다양한 여름 야생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수리, 산수국, 술패랭이 등을 비롯해 노고단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랑원추리가 반갑게 손짓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부대시설



외부 전경



로비



객실



온천

오래 머물수록 큰 혜택, 휴스데이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장기간 숙박을 원하는 공제회원을 위해 요금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된 휴스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7평형 객실 기준 1~7일간은 최저 4만원에, 8~30일간은 최저 1만원에 머물 수 있다.

또 휴스데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바비큐장 무료 이용, 구례 전통 오일장(3·8일)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8박 이상은 커피숍 5회 ▲15박 이상은 사우나 10회 ▲30박 이상은 산수유 세트 ▲45박 이상은 조식 5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휴스데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전화(061-783-8100)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휴스데이 요금

| 구분 | | 1~7박 | 8~30박 |
|-------|--------|-------|-------|
| 일~목요일 | 17평 | 4만원 | 1만원 |
| | 20평(후) | 5만원 | 2만원 |
| | 20평(전) | 6만원 | 3만원 |
| | 23평 | 7만원 | 4만원 |
| 금요일 | 17평 | 5만5천원 | 2만5천원 |
| | 20평(후) | 6만5천원 | 3만5천원 |
| | 20평(전) | 7만5천원 | 4만5천원 |
| 토요일 | 17평 | 8만원 | 5만원 |
| | 20평(후) | 9만원 | 6만원 |
| | 20평(전) | 11만원 | 8만원 |
| | 23평 | 13만원 | 10만원 |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 061-783-8100

The-K호텔의 휴스데이 프로그램은 지리산가족호텔을 비롯해 경주호텔(054-745-8100), 설악산가족호텔(033-639-8100)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독자 이벤트

<The-K 매거진> 8월 즉석당첨 이벤트

힘을 내요
슈퍼파워
리 리

땀나고, 지치고,
늘어지는 8월~
당첨의 행운을 빌려 힘을 내요!
슈퍼팔월~!!

이벤트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100개

SPC
₩10000

SPC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200개

CU
₩5000

CU편의점모바일상품권
5000원권(200개)

500개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8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9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제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심리 상담 'The-K 마음심' 오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나섰다. 회원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The-K 마음심' 서비스를 출시한 것. 교권 침해, 교육 활동 부당 간섭 등 직장 내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부터 대인 관계, 가정 문제, 자녀 양육 등 일상의 크고 작은 고민까지 현직 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전문가에게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며 힐링 캠프, 웰니스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상담은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전국 어디서나 회원 1인당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상담 및 전화·화상·메신저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공제회 회원 번호가 필요하며,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1566-5228

8월 말 퇴직예정 공제회원 장기저축급여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2019년 8월 말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시·도지부 회원 상담 창구를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분할급여금으로 전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받는 상품으로 세율 등에서 혜택이 큰 퇴직회원 전용 금융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시 단 한 번만 가입 신청할 수 있다. ☎1577-3400

| 홈페이지 청구 시 | 방문·우편 청구 시 |
|--|---|
|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인터넷 청구 → 저축 → 청구/장기저축급여 | - 장기저축급여청구서 1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원본 대조필)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제출 |
| - 은행용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스캔해(JPG, PDF 파일) 첨부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기재 ※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 |

'The-K 미래교사 해외 탐험대' 활동 돌입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The-K 미래교사 해외 탐험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The-K 미래교사 해외탐험대는 미래의 교사가 될 사범(교육)대학 학생들에게 해외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비교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다. 6월 30일까지 응모한 488팀을 대상으로 1차 참가지원서 및 팀방계획서 등의 서류 심사와 2차 PT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 팀이 참여한다. 7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각 팀에서 기획한 활동 주제로 탐방에 나서는 탐험 대원들은 여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해단식에 앞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함으로써 탐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TIAA(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와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 Teachers Insurance Annuity Association of America)과 지난 7월 8일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욕 TIAA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Joint VentureⅢ를 설립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한다. 또 ESG 원칙을 적극 활용한 대체 투자 분야에서 잠재적인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파견해 TIAA와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교직원공제회 차성수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는 국민 기업이자 기관투자자로서 선진 투자 방식을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며 “이번 협약은 기존 2차에 걸친 공동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Joint VentureⅢ를 설립한 것으로 2012년부터 이어져온 양사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향후에도 TIAA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 왼쪽부터 네 번째)는 7월 4일 The-K타워에서 (재)한국가치연대기금과 '사회적금융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주택 지원 사업처럼 연대기금이 제안하는 임팩트사업(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검토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파크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2일까지 신청



한국교직원공제회가 9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되는 파크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에 회원 가족을 초대한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시원한 초가을 밤 바람이 불어오는 잔디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매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번 행사에는 총 850명의 회원을 초청하며 좌석별로 피크닉석 350명에게 1인 4매씩, 로열석 500명에게 1인

2매씩을 제공한다. 디즈니 콘서트 오리지널 싱어즈 4인과 디토 오케스트라, 이병욱 지휘자가 <인어공주> <라인온 킹>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등 다수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삽입곡을 선보인다. 응모는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8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당첨 시 제세공과금(티켓가의 22%)은 회원 부담이다.



The-K호텔서울 서머 패키지

자연 친화적 호텔로 사랑받는 The-K호텔서울에서 휴가철을 맞아 도심에서 시원한 호캄스와 함께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서머 패키지를 8월 말까지 선보인다. ▲서머 패키지 A-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15만원 ▲서머 패키지 B-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18만원이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사우나 및 헬스장 이용 시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를 피해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쿠아리움 패키지도 선보인다. ▲아쿠아리움 패키지 A-일반실 1박, 모닝 뷔페 2인,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2매 18만2000원 ▲아쿠아리움 패키지 B-일반실 1박, 코엑스 아쿠아리움 이용권 2매 13만7000원이다. 아쿠아리움 이용권 추가 구매 시에는 1매 1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야외 BBQ&비어 파티와 연계된 바비큐 가든 패키지도 진행 중이다. BBQ&비어 파티 2인 쿠폰이 포함된 일반실 1박 패키지 가격은 17만원이다. BBQ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일·월요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7월 30일부터 8월 3일, 추석 연휴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휴장한다. 모든 패키지 고객에게는 우첼로, 더파크 이용 시 15% 할인 특전이 주어진다. ☎02-571-8100

The-K호텔경주 서머 페스티벌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공제회원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머 페스티벌 패키지를 판매한다. ▲서머 패키지 A-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12만5000~18만원 ▲서머 패키지 B-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수영/온천 2인 15만1000~20만6000원이다(이용 기간별 금액 상이). 온돌 객실 이용 시 5000원이 추가된다. 또 여름을 맞아 서머 바캄스 뷔페를 선보이고, 워터 슬라이드를 새로 마련한 야외 수영장은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야외 비어가든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장한다.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서머 지캄스 패키지 2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8월 '서머 지캄스(지리산+바캄스)' 패키지 2를 준비했다. 17평 객실 1박, 조식 2인, 에이드 2잔이 6만8000~16만4000원이다. 무더위를 날려줄 비어가든도 오픈한다. 이 기간 지리산에는 원추리, 지리터피플, 일월비비추 등 20여 종의 여름 야생화가 만개한다. ☎061-783-8100



힘이 되겠습니다

귀여운 아들의 웃는 모습,
승진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간 남편,
다음 달 타게 될 5년 부은 적금,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우리 반 아이들.

때론 생각만 해도 웃음 지어지고
힘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제도, 교직원라이프는
항상 교육가족 곁에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